



#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3.7.17.(월) 배포 즉시		사진	o	자료	x	매수	3
담당부서	에너지산업과 (RE100지원팀)	과 장	김연지 (031-8008-6010)					
		팀 장	이운표 (031-8008-6009)					
		담당자	황찬분 (031-8008-6019)					

##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위해 민간투자 4조 원 유치 대한민국 RE100 선도한다

- 2026년까지 50개 산단에 태양광 2.8GW 보급 -

- 경기도, 17일 에스케이이엔에스 등 8개 컨소시엄과 산업단지 RE100 투자협약
  - 경기도 4조원 민간투자유치로 2026년까지 산단 내 대규모 재생에너지 공급
  - 공모 통해 8개 민간투자사 선정, '경기 산단 RE100 추진단' 운영 부지발굴지원
  - 'RE100 수요공급 매칭 네트워크' 구축해 도내 RE100 기업과 협력사 지원
- 김동연 지사 “신재생에너지를 우리가 만들고, 이를 도의 재정 지원없이 기업 투자로 진행하며, 장소 제공 기업도 1천억의 임대료 수익 올리는 일석삼조의 사업”

경기도가 민간기업과 함께 도내 기업의 RE100 달성을 지원하는 '산업단지 RE100'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에는 8개 민간투자 컨소시엄이 참여하게 되는데 4조 원 규모를 투자해 2026년까지 경기도 내 50개 산단에 태양광 2.8GW(원전 2기 생산 전력량)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평택 포승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단지 입주기업인 티센크루프머티리얼코리아에서 에스케이이엔에스(SK E&S) 등 8개 민간투자 컨소시엄 대표들과 '산업단지 RE100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산업단지 RE100 사업'은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이나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서 나오는 재생에너지를 단지 내 공장은 물론 외부 기업에도 공급하는 사업이다.

도는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RE100을 실천하기 위해 협력업체에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요구하면서 국내 수출기업들에게 무역장벽이 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산업단지 RE100'을 적극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목표치를 하향한 가운데 이뤄진 이번 협약은 경기도가 대한민국 RE100을 선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산업단지는 환경·민원·계통연계 등의 이슈에서 자유롭고, 도내 193개 산단 유희부지 내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7.6GW에 이를 정도로 높아 RE100 달성에 효과적이며, 산단 입주기업의 탄소 규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도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공모를 통해 에스케이이엔에스(SK E&S) 등 11개사로 이뤄진 8개 민간투자 컨소시엄을 선정했으며, 이들은 2026년까지 4조 원 규모를 투자해 경기도 내 산단에 태양광 2.8GW를 보급할 계획이다. 2.8GW는 원자력발전소 2기가 생산하는 전력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협약에 따라 8개 컨소시엄은 재생에너지 설치에 필요한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입주기업 지원과 부지발굴, 재생에너지 설치와 전력 생산 및 자원 조달, RE100 기업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행정절차와 부지발굴을 지원하고 RE100 공급과 수요 연결을 지원한다.

도는 우선 올해 착수 가능한 산단 5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이를 도내 193개 산단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50개 산단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선정된 2개 컨소시엄이 해당 지역에서 산단 RE100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8개 컨소시엄과 '경기 산단 RE100 추진단'을 구성해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원한다. 8월부터 찾아가는 산업단지 간담회도 실시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RE100 이행이 시급한 경기도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협약으로 RE100 대응에 고심했던 도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확보가 쉬워져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지분을 빌려주는 기업 역시 임대 수익을 얻거나

지분투자 등을 할 수 있어 다른 산업단지들의 추가 참여도 예상된다.

50개 산단에 예정된 2.8GW의 태양광 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지붕이나 유휴 부지를 임대 해준 산업단지 내 기업들은 연간 총 1천억 원의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은 일석삼조의 의미가 있다”라면서 “첫 번째는 2.8GW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를 도의 재정 지원 없이 협약에 참가한 기업들의 투자로 한다는 것, 세 번째는 장소를 제공한 산단 내 기업들이 연간 1천 억의 임대료 수익을 올리게 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라며 “경기도는 기후 대응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해 신재생에너지를 충분히 조달하고, 관련 업체들은 사업 타당성에 따라 마음껏 투자할 수 있게 하고, 기업들은 거기에 따라서 수익도 낼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협약에는 경기도 탄소중립위원회 전의찬 위원장 외 총괄분과 위원들도 참석했다. 협약장소인 티센쿠루프머티리얼코리아는 경기도에서 토지를 임대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향후 약 70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 참 고 1

## 협약 참여 투자사(8개 컨소시엄)

주관기관	시군 및 산단 (16개 시군 50개 산단)
SK E&S 외 8개사	화성 국가산단(2) [반월 송산, 아산 우정지구]+일반산단(6)
LS일렉트릭	
아이솔라에너지엔라이트 외 1개사	안산, 시흥 국가산단(1) [반월 반월·시화·시화MTV]
한국동서발전 외 1개사	
에넬엑스코리아·한국중부발전 외 2개사	평택 국가산단(1)[아산 포승·원정지구]+일반산단(13)
신성이엔지 외 4개사	
DL에너지·삼천리자산운용 외 3개사	군포, 김포, 성남, 수원, 안성, 오산, 용인, 의왕, 양주, 파주, 포천, 동두천 일반산단(29)
케이씨솔라앤에너지 외 3개사	

## 참 고 2

## 협약 당사자 명단

기업명	성 명 / 직 위	기업명	성 명 / 직 위
에스케이이엔에스(주)	박 재 덕 부사장	한국중부발전(주)	박 영 규 기술안전부사장
엘에스일렉트릭(주)	오 재 석 부사장	(주)신성이엔지	이 지 선 대표이사
아이솔라에너지(주)	윤 석 규 대표이사	디엘에너지(주)	이 정 욱 대표이사
엔라이트(주)	이 영 호 대표이사	삼천리자산운용	박 충 선 대표이사
한국동서발전(주)	김 영 문 사장	케이씨솔라앤에너지(주)	김 용 학 대표이사
에넬엑스코리아(유)	김 형 민 대표이사		

##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023. 7. 17.(월) 14:00~15:00 / 티센크루프머티리얼코리아(평택)
- 참석대상 :
  - (경기도) 경기도지사,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행정수석, 경제투자실장,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등
  - (투자사) 에스케이이엔에스, 엘에스일렉트릭 등 8개 컨소시엄
  - (관계기관) 평택시장, 경기도 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 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등
- 주요내용 :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통한 기업 RE100 지원

## □ 진행 순서

시 간		소요 (분)	주 요 내 용	비 고
부 터	까 지			
14:00	14:05	5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14:05	14:10	5	· 산업단지 RE100 추진전략 보고	에너지 산업과장
14:10	14:25	15	· 인사말씀(도지사, 평택시장,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등)	
14:25	14:55	30	· 간담회	
14:55	15:00	5	· 협약서 서명 및 기념촬영	